

노인의 가족 현황과 전망



Older Koreans and Their Families: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정경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본고에서는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의 가족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거주 형태 및 가족 규모라는 형태적 측면과 더불어 접촉 및 지원 교환이라는 작동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의 자녀 동거율은 23.7%로 20여 년 전의 54.7%에 비하여 매우 낮아졌지만, 81.0%가 비동거 자녀와 주 1회 이상 연락을 하고 약 60%는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등 자녀와 동거는 하지 않지만 분리된 가구를 형성하며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또한 친인척과 접촉하는 비율은 (손)자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그 수준이 건강이나 경제 상태 만족도에 비하여 현격히 높다. 이러한 가족 현황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노년기의 가족 변화 방향을 예상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1. 들어가며

노인에게 가족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가족은 정서적 지지, 정보 제공, 물질적 보조 등의 다양한 지원을 주고받는데, 생물학적 노화와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분리 등 사회적 노화로 인하여 사회에서 유리될 가능성이 높은 노년기에는 그 기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Cantor(1979)

가 자아로부터의 거리에 기초하여 제시한 사회적 연계망 구성 요소 중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친척 등을 포함하는 가족은 일차적 비공식 관계에 속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가족 현황을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가족의 크기와 더불어 접촉 및 지원 교환이라는 구체적인 작동 측면에 초점

을 두고자 한다. 즉,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상호 작용 빈도와 관계의 상호성 같은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연령군별 가족의 특징과 가치관을 비교함으로써 노년기 가족의 변화 방향에 대한 단초를 발견해 보고자 한다. 노년기의 가족 생활 변화는 노인의 특성과 가치관 변화뿐만 아니라 노인 주변에 있는 가족의 규모나 구성 및 가족원의 가치관 변화, 노인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족의 변화를 전망해 보는 것은 노년기 생활상의 변화를 예상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 조금 낮은 91.3%이다. 또한 노인의 84.7%는 형제자매가 있는데, 자녀나 손자녀 비율에 비해서는 낮다. 이는 형제자매도 노인과 동시에 노화·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 자녀, 생존 손자녀, 형제자매 각각의 평균수는 3.1명, 4.9명, 3.4명이다.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의 가용성(Availability)에 비하여 가깝게 지내는 친근성을 감안한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 노인은 46.2%, 평균 0.8명이다. 이러한 가족 및 친구·이웃 실태를 종합하면 노인은 3.1명의 자녀와 4.9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고 있으며, 생존 형제자매는 3.4명인 데 비하여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척은 0.8명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의 친밀한 가족 관계가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가족 현황

가. 가족 규모

자녀와 친지의 유무 및 규모를 살펴보면, 노인의 63.4%는 배우자가 있고, 97.1%는 생존 자녀가 있으며, 생존 손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보

나. 거주 형태

거주 형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인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노년기의 가족 현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준다.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23.7%에 불과한데, 이

표 1.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규모

특성	배우자	생존 자녀	생존 손자녀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
있음(%)	63.4	97.1	91.3	84.7	46.2
평균수(명)	-	3.1	4.9	3.4	0.8

주: 배우자와 생존 자녀는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만 29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생존 손자녀와 형제자매는 이 중 장기요양시설이나(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64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가까운 친인척은 본인 응답자 1만 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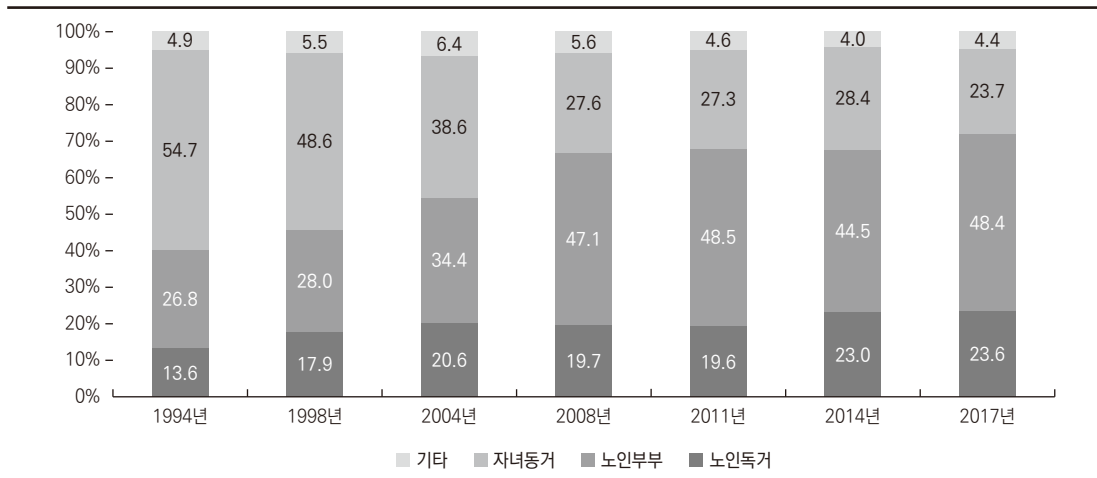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91 <표 5-1>, p. 192 <표 5-2> 재구성.

는 20여 년 전의 54.7%와 비교할 때 매우 큰 변화이다. 자녀 동거율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이후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의 23.7%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즉,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단독가구 형태가 이제는 가역적이지 않은 일반화된 현상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10.2%에 불과하다(정경희 외, 2017). 13.5%는 미혼 자녀와의 동거인데, 미혼 자녀는 결혼 또는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형태인 확대가족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10명 중 1명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기 보다는 분리된 가구를 형성하며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기혼 자녀와의 동거라는 전통적인 노년기 가구 형태를 이루고 있는 노인의 동거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자녀에게 가사 지원·손자녀 양육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로 27.3%이며, 다음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19.5%, ‘본인·배우자 수발이 필요해서’ 15.9%,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및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기 때문’이 각각 14.8%이다. 이러한 결과는 규범적으로 당연시되던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선택의 문제로 바뀌면서 노인과 자녀 양측의 상황에 따라 다양화

그림 1. 노인(65세 이상)의 가구 형태 변화(1994~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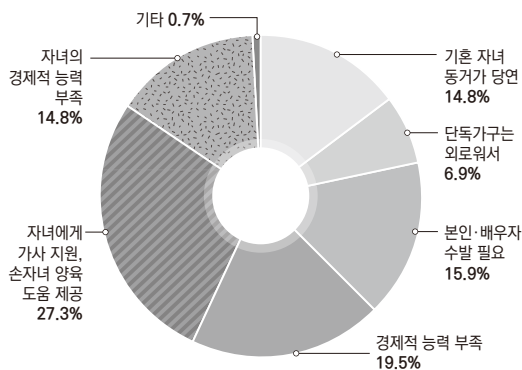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부. (1994). 노인생활실태조사 1994.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4)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리서치. (2008). 2008년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6)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규범적인 이유로 인한 동거는 14.8%, 외로움, 경제적·도구적 도움의 필요성에 의한 동거가 42.3%, 자녀의 경제적·도구적 필요성에 의한 동거가 42.1%이다. 한편,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약 3분의 1은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것이고,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싶거나 경제적·신체적 독립성이 있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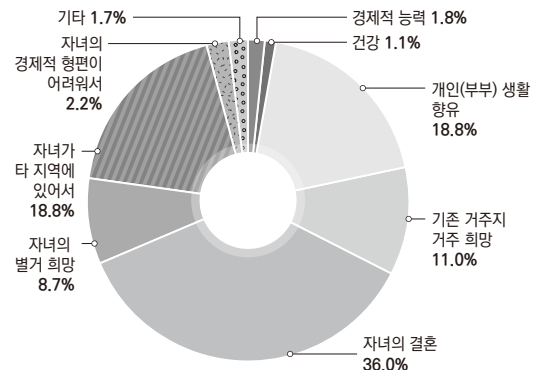
의한 것이 3분의 1,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이나 거주 거리 등 자녀 요인에 의한 것이 약 3분의 1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성인 자녀와는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자녀의 경제적인 능력 부족 및 손자녀 돌봄 등에서의 부모 세대 도움의 필요성, 노부모의 신체적 의존성 등과 같은 개별 가족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동거를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2. 노인(65세 이상)의 기혼 자녀 동거 이유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4 (표 4-11) 재구성.

그림 3. 노인(65세 이상)의 단독 거주 이유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0 (표 4-7) 재구성.

3. 가족과의 접촉 및 부양 교환

노인에게 중요한 가족원인 배우자, (손)자녀와의 접촉이나 부양 교환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배우자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도구적인 도움과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배우자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유배우 노인의 경우 39.7%가 배우자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19.8%는 그저

표 2. 유배우 노인(65세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

(단위: %)

배우자 본인	매우 건강	건강한 편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않은 편	전혀 건강하지 않음
매우 건강	0.3	1.6	0.4	0.3	0.1
건강한 편	0.9	20.3	6.7	9.9	1.4
그저 그렇다	0.2	7.0	7.3	6.9	1.2
건강하지 않은 편	0.4	8.3	5.0	14.8	3.0
전혀 건강하지 않음	0.1	0.6	0.5	1.6	1.3
전체	1.9	37.8	19.8	33.6	6.9

주: 본인 응답자 1만 73명 중 배우자가 있는 노인 6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응답한 64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63 <표 15-8> 재구성.

표 3. 노인(65세 이상)의 배우자 동반 외출 실태

(단위: %.)

동반 외출 빈도	거의 매일	일주일 2, 3회	주 1회 정도	월 1회 정도	분기 1~2회	연 1~2회	없음	계 (명)
	9.9	8.3	14.5	20.4	28.2	11.0	7.5	100.0 (6,401)

주: 본인 응답자 1만 73명 중 배우자가 있는 노인 6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에 대해 응답한 64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96 <표 5-4> 재구성.

그렇다고 평가하며, 40.5%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6.9%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노인의 건강 상태와 비교해 보면, 유배우 노인의 23.1%는 부부의 건강 상태가 모두 좋은 편인 반면 20.7%는 부부의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배우 노인 5명 중 1명은 부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의 9.9%가 거의 매일 외출하는 등 주 1회 이상 외출하는 비율은 32.7%로 약 3분의 1에 달한다. 한편 외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

연 1~2회 정도라는 응답이 11.0%로 배우자와의 외출 빈도가 양극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노년기 생활에 중요한 관계망 중 하나인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의 85.0%는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고 86.2%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 간 활발한 교류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구적 지원도 정서적 지원과 유사하게 76.7%의 수혜율과 75.1%의 제공률을 보인다. 수발 지원의 경우 제공률 62.1%, 수혜율 63.5%로, 앞선 두 부양 교환에 비해 수치가 낮다.

표 4. 노인(65세 이상)의 배우자와의 지원 교환

(단위: %)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¹⁾ (명)
정서적 지원 ²⁾ 수혜	16.8	68.2	10.8	4.2	100.0 (6,416)
제공	16.0	70.2	10.8	3.0	100.0 (6,416)
도구적 지원 ³⁾ 수혜	30.1	46.6	14.2	9.1	100.0 (6,416)
제공	25.4	49.7	17.4	7.4	100.0 (6,416)
수발 지원 ⁴⁾ 수혜	14.9	47.2	21.0	16.9	100.0 (6,416)
제공	14.7	48.8	21.7	14.7	100.0 (6,416)

주: 1) 본인 응답자 1만 73명 중 배우자가 있는 64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정서적 지원은 걱정거리나 문제점을 상담하는 것 등을 의미함.

3) 도구적 지원은 청소·식사 준비·세탁 등에 대한 지원을 의미함.

4) 수발 지원은 세탁·간병·수발·병원 동행 등에 대한 지원을 의미함.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승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24 <표 6-1>, p. 225 <표 6-2>, p. 227 <표 6-3>, p. 228 <표 6-4>, p. 230 <표 6-5>, p. 231 <표 6-6> 재구성.

나. 자녀

1)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노인의 9.6%는 거의 매일 왕래하고 28.3%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즉 노인 10명 중 3명 정도가 거의 매일 자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다. 일주일 1회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노인의 38.0%가 주 1회 이상 왕래하고 81.0%는 주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반면 분기별 1~2회 정도 왕래하는 비율은 17.2%로, 이는 명절 또는 부모의 생일과 같은 중요 경조사에만 왕래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 준다. 왕래에 비하여 비교적 수월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연락의 경우 분기 1~2회 이하인 비율도 4.6%로 나타나, 일상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노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자녀에 이어 비동거 손자녀와의 접촉 실태를 살펴보면, 왕래의 경우 거의 매일이 4.3%, 일주일에 2, 3회가 3.0%, 일주일 1회가 7.0%로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14.3%로 나타났다. 비동거 손자녀와 월 1회 이상 왕래하는 노인은 34.1%이며 연 1~2회 왕래도 33.5%로 나타났다. 한편 연락은 거의 매일이 3.0%, 일주일에 2~3회가 3.9%, 일주일 1회가 8.9%로 왕래 빈도와 비슷하였다. 왕래보다 연락을 빈번하게 하는 자녀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손자녀의 경우 연락이 전혀 없는 비율도 26.4%에 달한다. 즉, 손자녀와의 연락 빈도는 노인이 자녀와 연락하며 소식을 주고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 손자녀가 어리거나 학업 과정에 있는 연령대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노인(65세 이상)의 비동거 자녀 및 손자녀와의 접촉 실태

(단위: %)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 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³⁾	왕래·연락 없음	계 (명)
비동거 자녀 전체 ¹⁾	왕래 빈도	9.6	10.1	18.3	37.0	17.2	5.8	2.1	100.0 (9,629)
	연락 빈도	28.3	29.4	23.3	14.4	2.1	1.1	1.4	100.0 (9,629)
비동거 손자녀 전체 ²⁾	왕래 빈도	4.3	3.0	7.0	19.8	27.4	33.5	5.2	100.0 (9,081)
	연락 빈도	3.0	3.9	8.9	21.2	15.9	20.8	26.4	100.0 (9,081)

주: 1) 본인 응답자 1만 73명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629명(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본인 응답자 1만 73명 중 비동거 손자녀가 있는 90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3) 기타 포함.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99 <표 5-5>, p. 200 <표 5-6>, p. 211 <표 5-11>, p. 212 <표 5-12> 재구성.

2) 자녀와의 부양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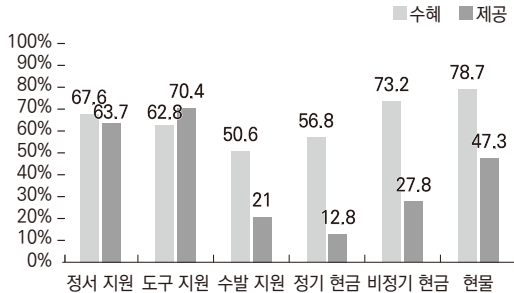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67.6%, 제공하는 비율은 63.7%이다. 도구적 지원은 62.8%가 제공받는 반면 70.4%는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의 경우, 제공률과 수혜율의 차이는 있으나 상호 간에 어느 정도 교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발 지원의 경우 50.6%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21.0%는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다.

경제적 부양의 경우 정기적 현금 지원 수혜율은 56.8%, 제공률은 12.8%인 반면, 비정기적 현금 지원 수혜율은 73.2%, 제공률은 27.8%이다. 현물 지원은 수혜율이 78.7%, 제공률이 47.3%이다.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제공률보다는 수혜율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교환 수준은 현물 지원, 비정기적 현금 지원, 정기적 현금 지원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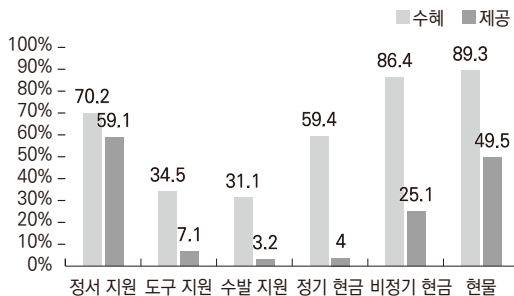
다음으로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제공률보다 수혜율이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의 70.2%가 비동거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제공한다는 응답은 59.1%로 나타났다. 도구적 지원은 34.5%가 받는 반면 제공은 7.1%에 그친다. 수발 지원은 31.1%가 받고 있으며 제공은 3.2%에 불과하다. 정서적 지원과 비교하여 가사 지원 등의 도구적 지원이나 간병 및 병원 동행 등의 수발 지원은 상호 간 방문이 필요한 활동이라 정서적 지원에 비해 제공률 및 수혜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적 지원에서도 수혜율이 제공률보다 현격히 높다. 수혜율은 현물 지원(89.3%), 비정기적 현금 지원(86.4%), 정기적 현금 지원(59.4%) 순이며, 제공률도 동일한 순서이다(49.5%, 25.1%, 4.0%).

그림 4. 노인(65세 이상)의 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35 <표 6-7>, p. 236 <표 6-8>, p. 237 <표 6-9>, p. 238 <표 6-10>, p. 239 <표 6-11>, p. 240 <표 6-12>, p. 241 <표 6-13> 재구성.

그림 5. 노인(65세 이상)의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46 <표 6-14>, p. 247 <표 6-15>, p. 248 <표 6-16>, p. 249 <표 6-17>, p. 250 <표 6-18>, p. 251 <표 6-19>, p. 252 <표 6-20> 재구성.

다. 친인척

노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접촉 빈도를 살펴보면, 접촉 수준이 자녀나 손자녀에 비하여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5.6%만이 주 1회 이상 왕래하고 있으며, 11.1%가 월 1회 왕래하고, 다수는 연 1~2회 왕래하고 있다. 연락 빈도의 경우 16.8%가 주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는 왕래 빈도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손자녀의 경우와 유사하다. 즉 손자녀에 비해 친인척과는 왕래 빈도는 낮지만 연락 빈도는 비슷하여, 자녀를 제외한 손자녀, 형제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왕래가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4. 관계의 질

관계의 만족도를 통하여 가족 관계의 질을 파악하고자 한다.²⁾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6.1%, '만족하는 편이다' 65.6%, '그저 그렇다' 21.7%, '만족하지 않

표 6. 노인(65세 이상)의 친인척과의 접촉 실태

(단위: %)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 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²⁾	왕래·연락 없음	계 (명)
왕래 빈도	1.9	1.2	2.5	11.1	18.8	43.2	21.3	100.0 (10,073)
연락 빈도	3.4	4.7	8.7	30.6	20.9	18.9	12.9	100.0 (10,073)

주: 1) 본인 응답자 1만 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기타 포함.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5 <표 5-13>, p. 216 <표 5-15> 재구성.

1) 친인척, 손자녀에 대해서는 부양 교환 실태가 조사되지 않았다.

는 편이다' 5.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8%로 만족률이 71.7%이다. 이는 건강이나 경제 상태 만족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³⁾ 자녀와의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좀 더 긍정적이며, '매우 만족한다' 8.0%, '만족하는 편이다' 68.7%, '그저 그렇다' 16.6%,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6%로 만족률이 76.7%이다.

한편, 자녀가 있는 경우(동거 여부와 무관) 자

녀와의 갈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8%이다. 갈등의 주 이유는 자녀의 장래 문제로 33.7%이며, 다음으로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20.9%, 노인 생활비 보조 14.0%, 수발 문제 13.6%, 동거 여부 문제 9.5%이다. 즉 절반 정도는 자녀의 요인이며, 노인의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표 7. 노인(65세 이상)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 함	계 (명)
배우자와의 관계 ¹⁾	6.1	65.6	21.7	5.8	0.8	100.0 (6,404)
자녀와의 관계 ²⁾	8.0	68.7	16.6	5.1	1.6	100.0 (9,839)

주: 1) 본인 응답자 1만 73명 내 유배우 노인 6416명 중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 응답한 64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본인 응답자 1만 73명 내 생존 자녀가 있는 9845명 중 관계 만족도에 응답한 98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82 <표 7-4>, p. 283 <표 7-5> 재구성.

표 8. 노인(65세 이상)의 자녀와의 갈등 실태

(단위: %)

특성	갈등 경험률	이유							계 (명)
		동거 여부	수발 문제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노인 생활비 보조	편애	자녀 장래 문제	기타	
전체	7.8	9.5	13.6	20.9	14.0	2.6	33.7	6.1	100.0 (770)

주: 1) 본인 응답자 1만 73명 중 생존 자녀가 있는 98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갈등의 이유에 대해서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7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8 <표 5-10> 재구성.

2)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만 조사되었다.

3)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 2.7%, '만족하는 편이다' 34.4%, '그저 그렇다' 24.0%,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2.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5%로 나타났으며, 경제 상태의 경우는 '매우 만족한다' 0.9%, '만족하는 편이다' 27.9%, '그저 그렇다' 36.0%,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0.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0%이다(정경희 외, 2017).

5. 나가며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가운데서도 연령 군별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향후 노년기로 진입할 예비 노인들은 현재 전기노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령군별 가족 현황을 비교해 보고 향후 가족 관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⁴⁾

연령군별 가족 자원을 비교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생존 자녀 수가 적은 경향을 보인다. 65~69세 연령군은 2.5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는 85세 이상이 4.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과 큰 차이이다. 이러한 연령군별 차이는 손자녀의 경우 더욱 커, 65~69세 연령군은 손자녀가 3.3명으로 85세 이상의 손자녀 8.0명과 차이가 크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저출산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 생존 형제자매 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적은 경향이 뚜렷하다. 65~69세 연령군은 형제자매 수가 3.8명인 반면 85세 이상은 2.3명으로 1.5명의 차이를 보인다. 한편, 가까운 친인척의 경우도 연령이 높을수록 적어, 65~69세 연령군은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 노인이 55.4%에 평균 1.1명이지만 85세 이상은 24.1%, 평균 0.4명으로 절반도 안 되는 규모이다. 이러한 경향과 최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출산율을 함께 고려하

면 노년기에 자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의 규모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⁵⁾ 또 생물학적 노화가 진행될수록 형제자매와 친척의 규모 또한 감소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노년기에는 다양한 측면의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가용성 자체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이를 비공식적 자원과 어떻게 연계하여 노인이 균형 잡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또한 가족을 통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 노년기가 길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친구나 지역사회 등 이차적 비공식 관계를 강화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자아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을 연령군별로 비교해 보면, 생물학적 노화가 진행될수록 유배우율이 낮아 85세 이상은 10명 중 3명 정도만이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건강이 나쁘다는 점에서 후기 노년기의 배우자에 의한 노인 부양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인부부가구 중 부부가 모두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와, 다양한 삶의 양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후기독거노인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년기 부양과 관련된 가치관을 연령군별로 비교해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낮아 65~69세 연령군

4) 지면의 제약으로 성별 비교는 본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가족 관련 현황에서 성별 차이가 크며, 특히 거주 형태의 경우 남자 노인의 64.5%가 배우자와만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구인 반면, 여자 노인의 경우 이 비율은 36.5%에 불과하며 33.0%가 혼자 생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접촉이나 부양 교환에서의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상세한 것은 정경희 외(2017)에 제시되어 있다.

5) 정경희 외(2015)에서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대부분(95.7%)이 가까운 시일 내에 노인단독가구를 형성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표 9.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가족 현황

(단위: %, 명)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전체
가족 유무							
유배우율		74.9	69.2	61.7	48.9	28.8	63.4
생존 자녀	있음	96.9	97.4	97.7	97.1	94.6	97.1
	평균수	2.5	2.9	3.5	3.9	4.1	3.1
생존 손자녀	있음	84.7	91.4	95.5	96.7	97.2	91.3
	평균수	3.3	4.3	5.8	6.8	8.0	4.9
형제자매	있음	93.3	93.3	82.9	75.5	56.4	84.7
	평균수	3.8	3.5	3.1	2.7	2.3	3.4
가까운 친인척	있음	55.4	48.8	43.1	36.1	24.1	46.2
	평균수	1.1	0.9	0.7	0.6	0.4	0.8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2.6	1.6	1.4	1.5	0.4	1.9
건강한 편		47.0	37.1	29.3	25.2	27.0	37.8
그저 그렇다		19.0	21.6	20.8	19.1	11.6	19.8
건강하지 않은 편		27.0	34.2	39.4	41.6	44.7	33.6
전혀 건강하지 않음		4.4	5.6	9.2	12.7	16.3	6.9
가구 형태							
노인독거		16.9	22.0	25.6	33.6	32.9	23.6
노인부부		53.4	53.8	48.4	40.7	24.9	48.4
자녀동거		24.2	20.7	22.9	21.9	35.6	23.7
기타		5.5	3.5	3.1	3.7	6.6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332)	(2,560)	(2,176)	(1,356)	(875)	(10,299)

주: 배우자와 생존 자녀는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만 29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존 손자녀와 형제자매는 이 중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64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가까운 친인척은 본인 응답자 1만 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76 <표 4-5>, p. 191 <표 5-1>, p. 192 <표 5-2>, p. 195 <표 5-3> 재구성.

은 9.9%에 불과하다. 이는 85세 이상 연령군의 30.3%와 크게 차이 난다. 노인단독가구 형성이 일반화될 것임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또한 65~69세 연령군이 동거 희망 자녀에 대해 기존의 장남이나 아들과 같은 당위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형편이 되는 자녀나 마음이 맞

는 자녀와 같이 선택적·상황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도 노년기의 가족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선택적이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관계로 변화해 갈 것임을 보여 준다 하겠다.

노후 생활비 마련과 관련해서는 34.0%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 33.7%가 ‘본인과 사회보장제

표 10.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자녀 동거 희망률 및 노후 동거 희망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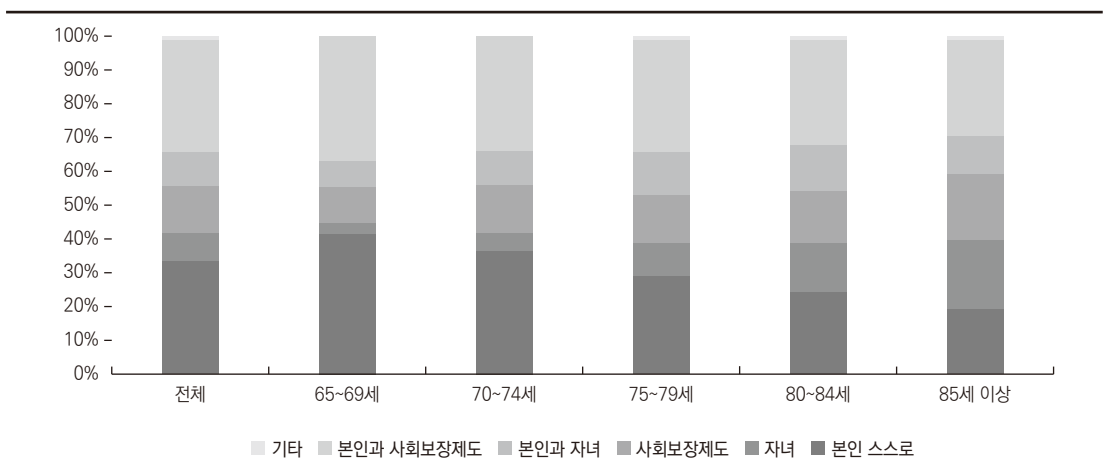
(단위: %)

특성	자녀 동거 희망률	노후 동거 희망 자녀							
		장남	아들	장녀	딸	형편이 되는 자녀	마음이 맞는 자녀	기타	계 (명)
전체	15.2	45.8	15.5	4.0	3.4	17.2	14.9	0.1	100.0 (1,529)
연령군별									
65~69세	9.9	40.7	15.6	6.8	5.4	18.1	13.5	0.0	100.0 (329)
70~74세	11.0	46.0	15.4	4.0	2.2	16.2	16.3	0.0	100.0 (278)
75~79세	17.9	47.0	14.0	2.9	3.0	18.0	14.7	0.4	100.0 (383)
80~84세	23.1	46.5	13.3	2.9	4.6	18.4	14.3	0.0	100.0 (304)
85세 이상	30.3	49.6	20.7	3.1	1.4	14.1	14.1	0.0	100.0 (235)

주: 본인 응답자 1만 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노후 동거 희망 자녀는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 152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76 <표 4-5>, p. 191 <표 5-1>, p. 192 <표 5-2>, p. 195 <표 5-3> 재구성.

그림 6.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자료: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96 <표 7-13> 재구성.

도'라고 응답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라는 응답은 14.1%이며, '본인과 자녀'는 10.2%, '자녀'라는 응답은 7.6%이다. 즉 본인 또는 공적 제도, 본인과 공적 제도의 협업에 의한 노후 생활비를 언급한 노인을 합하면 81.8%이다. 반면 자녀의 도움을 언급한 노인은 17.8%에 불과하다. 이를 연령군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 스스로라는 응답이 높아 65~69세 연령군은 41.7%이지만 85세 이상은 19.4%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자녀라는 응답은 65~69세 연령군은 3.0%이지만 85세 이상은 20.6%이다. 따라서 노년기 이전부터 노후 준비를 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준비 외에도 대인 관계의 변화에 대한 준비 및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필요하며,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성을 갖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⁶⁾ ■

참고문헌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리서치. (2008). 2008년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김소영.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김경래, 오영희, 이윤경, 황남희, 이선희. (201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 (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antor, M. H. (1979).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1(4), 434-463.

6)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기초한 '제1차(200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